

保健教育 · 健康增進學會誌 第16卷 2號(1999. 9)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6, No.2(1999)

#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 1학년 여중생을 대상으로 -

계수연\* ·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학과

〈목 차〉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영문초록

## I. 서론

### A.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서구사회가 삼사백년동안에 걸쳐서 일으킨 산업화와 과학화를 지난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였고, 이로 인한 초고속 문화변동은 우리사회에 가치관의 혼돈을 유발하여,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다(홍강의, 1996). 산업화와 함께 밀려들어온 서구의 성개방 풍조는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성문화를 허용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왔으

며,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성정보의 문란과 성의 상품화에 의한 각종 음란매체와 퇴폐향락 풍조는 그 동안 고수해 온 우리 사회의 성가치관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영양·보건상태가 현저히 향상되어 육체적 성장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그들의 성적성숙도 현저하게 빨라지는 추세에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이와 같은 육체적, 성적성숙의 급속한 발달은,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충동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Werkmann, 1974)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가치관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면

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청소년 상담실에서 1997년 실시한 상담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사례분포 중 성문제가 50.1%(821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10대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성문제 상담사례분포 중 62.1%(5102건)나 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위행위(34.1%)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원치않는 임신(30.6%)이 가장 많은 상담내용이었고, 성폭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비율도 4.8%나 되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또한 90년대 이후 전체 성폭력 중 약 30%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법무부, 1995), 1993년 한해 동안 성병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818명이나 되었다(의료보험 통계연보, 1994).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보다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Kirby, 1980), 정확한 성지식은 무지로 인한 성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건강한 성태도의 형성에도 필요한 요소이다(이금명, 1997).

지식과 태도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도록 유도될 수 있는데(박순선, 1993), 이러한 성교육의 일차적 담당자는 가정과 학교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은 가장 중요한 성의 사회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가 성교육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가정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들과의 대화의 기회는 더욱 제약되고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금명, 1997). 따라서 청소년들이 하

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수의 청소년들을 접할 수 있으며, 가장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 교사들도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순희, 1990; 신순용, 1993; 이현숙, 1993; 이근정, 1996; 이병우, 1996; 김미경, 1997; 배윤성, 1997; 최광수, 1997).

그러나 1983년 문교부가 '성교육 지도자료'를 배포한 이래로 적절한 성교육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1996).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조차도 1년에 1~2시간 수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김미경, 1997),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남녀의 생식기에 관한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성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김정희, 1992).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대상이 지원자에 한정되어 있거나(양주연, 1997), 교육내용이 남녀의 신체적·생리적 차이, 임신, 이성교제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한유정, 1996), 모든 학생에게 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시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청각 자료 등의 도구와 토론 등의 방법으로 교육한 후, 교육 전·후 지식,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 효

과를 알아봄으로써,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학교 성교육 실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라 교육전 지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b. 성교육 후 실험군의 지식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 c. 성교육 후 실험군의 태도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H여중 1학년 3개학급(115명)을 실험군으로, S여중 1학년 2개학급(84명)을 대조군으로 편의상 선정하였다. 사용된 연구설계는 유사 실험 대조군 전후설계(Compromise Experimental Group - Control Group Pre - Post Test Design)로써, 1998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험군 한 학급당 총 6차시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태도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1998년 9월 19일에 사전설문조사를, 1998년 9월 30일에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B. 연구도구

#### 1. 성교육 수업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성교육 수업 내용은, 서울

특별시 교육청(1997)에서 제작한 중학교 성교육 교과서 '성과 행복'의 전체적인 내용이며,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중동중학교 인성교육연구위원회(1997)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교육 자료 '우리들의 멋진 사춘기'를 참고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성과 성역할 (2)우리의 몸 (3)좋은 이성친구가 되려면 (4)생명의 탄생 (5)성폭력과 인공유산 (6)성병과 AIDS 이다.

### 2. 설문지

설문지는 사전·사후 설문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전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9문항), 성관련 특성(성교육경험, 성정보출처, 성고민, 알고 싶은 성지식 - 19문항), 성지식(30문항), 성태도(21문항) 등 총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후 설문지는 성고민(3문항), 성지식(30문항), 성태도(21문항), 성교육 수업에 대한 의견(2문항) 등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지식은 성의 개념과 성역할, 성충동, 남녀의 생식기 구조와 2차성징, 임신과 피임, 성폭력과 인공유산, 성병과 AIDS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의 경우에 1점을, 오답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에 0점을 주어, 최고가능점수 30점, 최하가능점수 0점이 되도록 점수화하였다. 성태도는 성의 개념과 성역할, 사춘기 정서, 남녀의 2차성징, 이성교제, 임신과 피임, 성폭력과 인공유산, AIDS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화 되어, 긍정문항에는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화하였고, 부정문항에는 역으로 배점하여, 최고가능점수 84점, 최하가능점수 21점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 C.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 실시 전,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성교육 실시 전,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 지식, 태도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Homogeneity) 검증을 위하여  $\chi^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3. 성교육 실시 후, 실험군 및 대조군 각각의 교육 전·후 지식, 태도의 변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4. 성교육 실시 후,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고민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A. 연구대상자의 특성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여중 1학년생 5개학급으로 총 199명이었고, 실험군 115명(57.8%), 대조군 84명(42.2%)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종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40.9%, 35.7%로 기독교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은 무교(25.2%), 불교(22.6%), 천주교(10.4%) 순이었고, 대조군은 불교(25.0%), 천주교(22.6%), 무교

(15.5%) 순이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실험군이 97.4%, 대조군이 98.8% 였으며,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실험군이 95.7%, 대조군이 95.2%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고졸이 51.3%, 61.8%로 가장 많았고, 두 군 모두 중졸이하, 대졸이상(22.6%, 21.5%; 19.1%, 15.5%)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고졸이 49.6%, 59.5%로 가장 많았고, 두 군 모두 중졸, 대졸이상, 초졸이하(22.6%, 20.2%; 12.2%, 9.6%; 7.8%, 8.3%) 순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님 중 적어도 한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5.6%, 91.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9%, 86.9%로 가장 많았다.

집안 분위기는 '보통'인 경우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73.1%, 73.8%로 가장 많았으며, '개방적'인 경우가 19.1%, 15.5%, '보수적'인 경우는 5.2%, 7.1%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상태, 집안 분위기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두 집단이 일반적 특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 표 1 >.

#### 2. 연구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 1) 성교육 경험

연구대상자의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율은

〈표 1〉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험군	대조군	$\chi^2$
		명 (%)	명 (%)	
종교	무교	29(25.2)	13(15.5)	9.359
	기독교	47(40.9)	30(35.7)	
	불교	26(22.6)	21(25.0)	
	천주교	12(10.4)	19(22.6)	
	기타	1 (0.9)	1 (1.2)	
아버지 생존여부	계시다	112(97.4)	83(98.8)	0.496
	안계시다	3 (2.6)	1 (1.2)	
어머니 생존여부	계시다	110(95.7)	80(95.2)	2.102
	안계시다	3 (2.6)	4 (4.8)	
	무응답	2 (1.7)	0 (0.0)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22(19.1)	13(15.5)	5.602
	고졸	59(51.3)	52(61.8)	
	중졸이하	26(22.6)	18(21.5)	
	무응답	8 (7.0)	1 (1.2)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14(12.2)	8 (9.6)	3.949
	고졸	57(49.6)	50(59.5)	
	중졸	26(22.6)	17(20.2)	
	초졸이하	9 (7.8)	7 (8.3)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과 함께 산다	110(95.6)	77(91.6)	3.010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	4 (3.5)	3 (3.6)	
	무응답	1 (0.9)	4 (4.8)	
경제적 상태	상	5 (4.3)	7 (8.3)	4.224
	중	101(87.9)	73(86.9)	
	하	5 (4.3)	4 (4.8)	
	무응답	4 (3.5)	0 (0.0)	
집안 분위기	보수적	6 (5.2)	6 (7.1)	0.820
	보통	84(73.1)	62(73.8)	
	개방적	22(19.1)	13(15.5)	
	무응답	3 (2.6)	3 (3.6)	
계		115(100.0)	84(100.0)	

20.1%로 나타나, 초등학교 5,6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22.8%보다 낮았는데, 이는 박(1993)의 연구가 대도시에서 행하여진데 비해, 본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는 중소도시로,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단조롭고 유해한 환경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윤미(1997)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율이 43.7%였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성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대다수(79.1%)가 1~2회로 그쳤다고 응답하여,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율은 89.9%로, 초등학교 때 1~2시간의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배운성(1997)의 중학교 1학년생의 학교 성교육 경험율 85%와 비슷하였다<표 2>.

<표 2> 성교육 경험

특 성	구 분	명	(%)
가정 성교육 경험	있다	40	(20.1)
	없다	155	(77.9)
	무응답	4	(2.0)
계		199	(100.0)
학교 성교육 경험	있다	179	(89.9)
	없다	18	(9.1)
	무응답	2	(1.0)
계		199	(100.0)

2) 성정보 출처

성정보 출처는 선생님이 59.8%로 가장 많았고 영화·라디오·TV·비디오(40.7%), 친구(35.2%), 책·만화·신문·잡지(31.7%), 부모님

(15.6%), 형제·자매(7.0%), 컴퓨터통신(1.5%), 전화(1.5%) 순이었다.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여중생들이 친구(52.6%), 선생님(43.7%), 대중매체(30.8%), 책·잡지(27.6%), 부모님(20.5%) 등의 순으로 성정보를 얻는다고 하였고, 김의영(1996)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친구(40.8%), 대중매체(26.5%), 선생님(19.2%), 책·잡지(13.3%), 부모님(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으로부터 성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성정보가 친구나 대중매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올바르게 못한 성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3>.

3) 성고민

연구대상자 중 27.1%가 성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문희(1993)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 중 30.1%가 성고민이 있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표 4>.

성고민의 유형<표 5>에는 이성교제가 50%로

<표 3> 성정보 출처

출처		명/(%)						
		부모	선생님	친구	형제 자매	책 만화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TV 비디오	컴퓨터 통신
습득 여부								
습득 하였다.	31 (15.6)	119 (59.8)	70 (35.2)	14 ( 7.0)	63 (31.7)	81 (40.7)	3 ( 1.5)	3 ( 1.5)
습득 안했다.	168 (84.4)	80 (40.2)	129 (64.8)	185 (93.0)	136 (68.3)	118 (59.3)	196 (98.5)	196 (98.5)
계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표 4> 성고민 유무 및 해결방법

특 성	구 분	명	(%)	
성고민 유무	있다	54	(27.1)	
	없다	141	(70.9)	
	무응답	4	(2.0)	
계		199	(100.0)	
성고민 해결방법	부모님	7	(13.0)	
	선생님	2	(3.7)	
	친구	24	(44.4)	
	아는 언니	2	(3.7)	
	상담기관	0	(0.0)	
	책·잡지	7	(13.0)	
	영화·TV·라디오·PC	3	(5.5)	
	해결방법이 없다	9	(16.7)	
	계		54	(100.0)

가장 많아, 이현숙(1993), 박성정(199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폭력·강간(11.1%), 성병·피임(5.6%), 임신·출산(5.5%)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이기는 하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를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표 4>으로는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아

무런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 경우(16.7%), 책·잡지를 통해 해결(13%), 부모님과 상의(13%) 등의 순이었고, 선생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3.7%밖에 되지 않았다. 이용구(1991)의 연구에서도 여중생은 친구에게 성고민을 의논하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해결(18.5%), 부모님과 상의(16.2%) 등의 순이었으며, 선생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1.7%로 가장 적었다. 이문희(1993)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은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 해결(19.7%), 부모님과 상의(10.4%), 책·잡지를 통해 해결(8.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선생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1.0%에 그쳐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고민을 선생님이나 부모님, 전문가가 아닌 친구와 해결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짐으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해결방법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교육이나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성고민 해결에 올바른 지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알고 싶은 성지식

연구대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에 대한 내

<표 5> 성고민 유형

유형 유무	이성 교제	생리 현상	성행위	임신 출산	신체 구조	성병 피임	성충동	성폭력 강간
고민 있다	27 (50.0)	17 (31.5)	2 (3.7)	3 (5.5)	4 (7.4)	3 (5.6)	3 (5.6)	6 (11.1)
고민 없다	172 (50.0)	182 (68.5)	197 (96.3)	196 (94.5)	195 (92.6)	196 (94.4)	196 (94.4)	193 (88.9)
계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199 (100.0)

용에는 이성교제가 61.8%로 가장 많아, <표 5>에 제시된 연구대상자들의 성고민과 일치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김홍규(1996)의 연구에서도 여중생들은 이성교제(35.5%)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이성교제(51.5%)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같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흥미를 가장 끌지 못하는 성에 대한 내용은 생식기의 구조 및 2차성징이었는데, 궁금하지 않거나 관심없다고 한 비율이 69.3%이었다. 이는 최순희(1990)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70.3%)고 한 점과 지식에 대한 정답율이 해당 내용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점(59.7%)으로 미루어 보아, 신체구조에 대한 교육을 이미 초등학교 때 받아, 그 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 B.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

성지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전 지식점수와 각 특성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연구대상자의 지식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0.05$ ). 이는 연구대상이 여학생인 만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 적어도 부모님 중 한 분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알고 싶은 성지식

구 분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관심없다	무응답	계
생식기의 구조와 2차성징	57(28.6)	93(46.7)	45(22.6)	4(2.0)	199(100.0)
사춘기 정서	111(55.8)	60(30.2)	25(12.6)	3(1.5)	199(100.0)
남녀의 생리	105(52.8)	63(31.7)	28(14.1)	3(1.5)	199(100.0)
자위행위	82(41.2)	55(27.6)	57(28.6)	5(2.5)	199(100.0)
성병	93(46.7)	59(29.6)	42(21.1)	5(2.5)	199(100.0)
성교	83(41.7)	60(30.2)	50(25.1)	6(3.0)	199(100.0)
임신	91(45.7)	64(32.2)	40(20.1)	4(2.0)	199(100.0)
피임	90(45.2)	54(27.1)	51(25.6)	4(2.0)	199(100.0)
인공유산(낙태)	83(41.7)	52(26.1)	57(28.6)	7(3.5)	199(100.0)
성폭력	82(41.2)	69(34.7)	43(21.6)	5(2.5)	199(100.0)
이성교제	123(61.8)	51(25.6)	22(11.1)	3(1.5)	199(100.0)
AIDS	97(48.7)	37(18.6)	58(29.1)	7(3.5)	199(100.0)



( $p < 0.05$ ). 이는 김상근(1986)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부모와의 거주 생활 속에서 많은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상태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가정에서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식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연구에서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보다 지식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박순선의 연구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식점수를 보였다( $p < 0.05$ ).

성고민 유무에 따라서는 고민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점수가 높았다( $p < 0.05$ ). 이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성정보를 습득한 결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르게 못한 지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사춘기때의 성교육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표 7>.

##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전 태도점수와 각 특성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천주교, 기독교, 불교 순) 없는 경우보다 태도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태도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집안분위기가 개방적일수록 태도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표 7>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전 지식

특 성	구 분	교육전 지식점수 (Mean ± S.D.)	t 또는 F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14.86 ± 5.37	3.467*
	고졸	13.22 ± 4.17	
	중졸이하	11.98 ± 4.84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님 중 적어도 한분과 함께 산다	13.02 ± 4.51	2.022*
	부모님과 살지 않는다	9.43 ± 7.16	
경제적 상태	상	15.25 ± 6.51	1.628
	중	12.77 ± 4.49	
	하	12.67 ± 4.39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	있다	14.1 ± 5.92	1.521
	없다	12.59 ± 4.2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	있다	13.11 ± 4.61	2.008*
	없다	10.83 ± 4.29	
성고민유무	있다	14.85 ± 4.28	2.341*
	없다	12.43 ± 4.68	

\* $p < 0.05$

〈표 8〉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전 태도

특 성	구 분	교육전 태도점수 (Mean ± S.D.)	t 또는 F
종 교	무교	53.45 ± 8.18	2.141
	기독교	55.04 ± 6.64	
	불교	55.02 ± 5.43	
	천주교	57.32 ± 4.44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57.00 ± 6.32	1.080
	고졸	55.39 ± 5.62	
	중졸이하	54.75 ± 6.93	
집안분위기	보수적	54.92 ± 6.46	0.654
	보통	55.04 ± 6.56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	있다	57.15 ± 6.62	2.210*
	없다	54.61 ± 6.46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	있다	55.46 ± 6.52	2.268*
	없다	51.83 ± 5.97	

\*p<0.05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은 태도점수의 증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순선(1993)의 연구에서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보다 태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

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지식과 태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학교성교육이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

이로써 <가설 a>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라 교육 전 지식 및 태도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 C.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은 <표 1>에서 검증되었으며, 성관련특성, 지식, 태도에 있어서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임이 검증되었다<표 9> <표 10> <표 11>.

〈표 10〉 지식 및 태도의 동질성 검증

시기	구분	실험군 (Mean ± S.D.)	대조군 (Mean ± S.D.)	t
교육전	지식	12.33 ± 4.48	12.56 ± 4.77	0.347
	태도	54.79 ± 7.27	55.57 ± 5.31	0.875

〈표 9〉 성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특 성	분 야	구 분	실험군		대조군		χ <sup>2</sup>
			명	(%)	명	(%)	
성교육 경험	가정에서의 성교육경험	있다	21	(18.3)	19	(22.6)	2.532
		없다	93	(80.9)	62	(73.8)	
		무응답	1	(0.9)	3	(3.6)	
	학교에서의 성교육경험	있다	103	(89.6)	76	(90.5)	3.324
		없다	12	(10.4)	6	(7.1)	
		무응답	0	(0.0)	2	(2.4)	
성고민	성고민유무	있다	34	(29.6)	20	(23.8)	1.431
		없다	78	(67.8)	63	(75.0)	
		무응답	3	(2.6)	1	(1.2)	
계			115	(100.0)	84	(100.0)	

〈표 11〉 알고 싶은 성지식의 등질성 검증

특 성	구 분	실험군	대조군	$\chi^2$
		명(%)	명(%)	
생식기의 구조와 2차성징	궁금하다	34(29.6)	23(27.4)	0.683
	궁금하지 않다	53(46.1)	40(47.6)	
	관심없다	25(21.7)	20(23.8)	
	무응답	3( 2.6)	1( 1.2)	
사춘기 정서	궁금하다	61(53.0)	50(59.5)	1.251
	궁금하지 않다	38(33.0)	22(26.2)	
	관심없다	14(12.2)	11(13.1)	
	무응답	2( 1.7)	1( 1.2)	
남녀의 생리	궁금하다	63(54.8)	42(50.0)	0.640
	궁금하지 않다	35(30.4)	28(33.3)	
	관심없다	15(13.0)	13(15.5)	
	무응답	2( 1.7)	1( 1.2)	
자위행위	궁금하다	49(42.6)	33(39.3)	0.872
	궁금하지 않다	33(28.7)	22(26.2)	
	관심없다	30(26.1)	27(32.1)	
	무응답	3( 2.6)	2( 2.4)	
성병	궁금하다	55(47.8)	38(45.2)	0.640
	궁금하지 않다	35(30.4)	24(28.6)	
	관심없다	22(19.1)	20(23.8)	
	무응답	3( 2.6)	2( 2.4)	
성교	궁금하다	49(42.6)	34(40.5)	4.375
	궁금하지 않다	39(33.9)	21(25.0)	
	관심없다	23(20.0)	27(32.1)	
	무응답	4( 3.5)	2( 2.4)	
임신	궁금하다	54(47.0)	37(44.0)	1.034
	궁금하지 않다	37(32.2)	27(32.1)	
	관심없다	21(18.3)	19(22.6)	
	무응답	3( 2.6)	1( 1.2)	
피임	궁금하다	55(47.8)	35(41.7)	2.549
	궁금하지 않다	32(27.8)	22(26.2)	
	관심없다	25(21.7)	26(31.0)	
	무응답	3( 2.6)	1( 1.2)	
인공유산(낙태)	궁금하다	51(44.3)	32(38.1)	1.697
	궁금하지 않다	29(25.2)	23(27.4)	
	관심없다	30(26.1)	27(32.1)	
	무응답	5( 4.3)	2( 2.4)	
성폭력	궁금하다	49(42.6)	32(38.1)	1.235
	궁금하지 않다	41(35.7)	29(34.5)	
	관심없다	23(20.0)	20(23.8)	
	무응답	2( 1.7)	3( 3.6)	
이성교제	궁금하다	69(60.0)	54(64.3)	1.789
	궁금하지 않다	33(28.7)	18(21.4)	
	관심없다	11( 9.6)	11(13.1)	
	무응답	2( 1.7)	1( 1.2)	
AIDS	궁금하다	58(50.4)	39(46.4)	1.326
	궁금하지 않다	23(20.0)	14(16.7)	
	관심없다	30(26.1)	28(33.3)	
	무응답	4( 3.5)	3( 3.6)	
계		115(100.0)	84(100.0)	

### D. 성교육 실시에 따른 지식, 태도의 변화

성교육 실시에 따른 지식,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전·후 지식점수 및 태도점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지식점수는 12.33점에서 21.1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p < 0.001$ ), 태도점수도 54.79점에서 61.9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 < 0.001$ ).

반면 대조군의 지식점수는 12.56점에서 12.44점으로, 태도점수는 55.57점에서 56.36점으로 변화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교육이 지식과 태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설 b>의 '성교육 후 실험군의 지식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와 <가설 c>의 '성교육 후 실험군의 태도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표 12>.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귀현(1986), 방미라(1990), 이성희(1992), 김용자(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유정(1997), 양주연(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연자(1992), 박순선(1993), 사은령(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본 김옥란(1987)의 연구에서는 지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나, 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겨진다.

### E.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고민의 변화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고민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고민유무의 변화를 비교하여 본 결과, 성교육이 교육전·후 성고민유무 변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교육전에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명이었는데, 교육후에는 25명으로 줄어, 성교육 실시가 학생들의 고민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표 13>.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고민 유형 변화 <표 14>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전에는 각 유형별로 총 43건의 고민이 있었는데, 교육후에는 29건으로 줄어, 성교육이 학생들의 고민유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각 고민유형별로 보면, 고민의 감소폭이 크면, 증가폭도 컸으며,

<표 12>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전·후 지식 및 태도의 차이

대상	구분	교육전	교육후	교육전·후차	t
		(Mean ± S.D.)	(Mean ± S.D.)	( $\bar{d}$ ± S.E.)	
실험군	지식	12.33 ± 4.48	21.13 ± 5.12	8.80 ± 0.44	20.118***
	태도	54.79 ± 7.27	61.95 ± 6.53	7.16 ± 0.68	10.489***
대조군	지식	12.56 ± 4.77	12.44 ± 5.35	-0.11 ± 0.39	- 0.299
	태도	55.57 ± 5.31	56.36 ± 4.85	0.79 ± 0.54	1.463

\*\*\* $p < 0.001$

〈표 13〉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고민 유무

특성	구분	교육 후 고민유무		계	$\chi^2$
		있다	없다		
교육 전	있다	14	19	33	10.659**
고민유무	없다	11	67	78	
	계	25	86	111	

\*\*p<0.01

(명)

〈표 14〉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고민 유형 변화  
(건)

	교육전	증가분	감소분	교육후
이성교제	16	+6	-12	10
생리현상	9	+6	-6	9
성행위	1	+0	-1	0
임신·출산	3	+2	-3	2
신체구조	2	+0	-1	1
성병·피임	3	+3	-2	4
성충동	3	+0	-3	0
성폭력·강간	6	+1	-4	3
계	43	+18	-32	29

전적인 변화의 폭이 큰 고민 내용일수록,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었다(표 - 6참조). 이는 관심이 큰 분야일수록 다양한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arcel & Luttmann(1979)이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회 90분 단위로 총 10회에 걸쳐 10주동안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총 24문항의 성고민 중 4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다른 20문항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성문제를 가진데 반해 성교육은 일률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학생들의 문제에 맞는 개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F. 성교육 수업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성교육 수업에 대한 실험군의 의견 분석에서 토론수업으로 진행된, 3차시의 ‘좋은 이성친구가 되려면’(27.0%)을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육 대상자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면서, 또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 다음 순위로 ‘성병과 AIDS’(20.9%), ‘생명의 탄생과 피임’(20%)이 차지하였는데, 비디오 시청위주로 진행된 이 수업은 성교, 임신의 과정, 성병에 대한 솔직한 묘사가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체구조를 위주로 하는 단편적인

〈표 15〉 가장 도움이 된 수업

차시	주제	명 (%)
1차시	성과 성역할	10 (8.7)
2차시	우리의 몸	10 (8.7)
3차시	좋은 이성친구가 되려면	31 (27.0)
4차시	생명의 탄생과 피임	23 (20.0)
5차시	인공유산과 성폭력	11 (9.6)
6차시	성병과 AIDS	24 (20.9)
	무응답	6 (5.1)
	계	115 (100.0)

성교육과 강의에 의한 교과서적인 성교육은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실제적인 내용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1998년 9월 21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 실험군 한 학급당 총 6회의 성교육을 실시한 후, 실험군 3개학급(115명)과 대조군 2개학급(84명)의 교육 전·후 지식, 태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교육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학교 성교육 실시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 연구대상자의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율은 20.1%였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율은 89.9%였다. 성정보출처로는 선생님이 59.8%로 가장 많았고, 영화·라디오·TV·비디오(40.7%), 친구(35.2%), 책·만화·신문·잡지(31.7%), 부모님(15.6%), 형제·자매(7.0%), 컴퓨터통신(1.5%), 전화(1.5%) 순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27.1%가 성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고민의 유형으로는 이성교제가 50.5%로 가장 많았고, 생리현상(31.5%), 성폭력·강간(11.1%), 신체구조(7.4%), 성병·피임(5.6%), 성충동(5.6%), 임신·출산(5.5%), 성행위(3.7%) 순이었다.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 경우(16.7%),

책·잡지(13.0%), 부모님(13.0%), 영화·라디오·TV·비디오(5.5%), 아는 언니(3.7%), 선생님(3.7%) 순이었다.

3. 연구대상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성에 대한 내용에는 이성교제가 61.8%로 가장 많았고, 사춘기정서(55.8%), 남녀의 생리(52.8%), AIDS(48.7%), 성병(46.7%), 임신(45.2%), 피임(45.2%), 인공유산(41.7%), 성교(41.7%), 자위행위(41.2%), 성폭력(41.2%), 생식기의 구조와 2차성징(28.6%) 순이었다.
4. 성지식에 영향을 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성고민이 있는 경우에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5.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태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6. 성교육 전·후 지식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대조군의 경우 12.56점에서 12.44점으로 약간 감소되었으나, 실험군의 경우 12.33점에서 21.1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 < 0.001$ ).
7. 성교육 전·후 태도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대조군의 경우 55.57점에서 56.36점으로 약간 증가되었으나, 실험군의 경우 54.79점에서 61.9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p < 0.001$ ).
8. 성교육 전·후 실험군의 성고민을 비교하여 보면, 성교육이 교육전·후 성고민유무 변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1$ ): 교육전에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명이었는데, 교육후에는 25명으로 줄어, 성교육 실시가 학생들의 고민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9. 교육대상자의 수업에 대한 의견에서, 토론식으로 진행된 3차시의 '좋은 이성친구가 되려면'(27.0%)을 가장 도움이 된 수업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성고민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은 친구와 의논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을 통한 성교육, 성상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성병·피임, 성폭력·강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모든 성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수업을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교육 내용 선정시 학생들의 참여가 요구되며, 수업진행에 학생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미경 : 중등학교 성교육 현황 및 성교육 담당교사들의 태도,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 김상근 : 여고생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 김옥란 : 국민학교 6학년의 성교육 필요도와 성교육에 의한 성지식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경북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 김용자 :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5. 김윤숙 :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김의영 :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7. 김홍규 : 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조사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8.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 상담실 : 「청소년 상담실 활동사례집」, 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9.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성문화연구소 :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10. 박성정 :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1. 박순선 :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전 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2. 방미라 :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0, 3(1)
13. 배운성 :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4. 법무부 : 성비행 청소년을 위한 지도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5, 4-18
15. 사은령 : 성교육 학습방법에 따른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6.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편찬 : 「성교육」, 현문사, 1996
17.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성과행복」,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18. 성문화연구소 : 「에이즈 교육 지침서」,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19. \_\_\_\_\_ : 「청소년 성교육-신체적인 면」,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20. 양주연 :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1. 우윤미 :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2. 의료보험관리공단 : 의료보험통계연보, 1993
23. 이귀현 :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4. 이근정 : 청소년 성지식과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5. 이문희 : 도시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6. 이병우 :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7. 이성희 :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8. 이현숙 :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9. 장미리 : 중학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0. 조성자 : 청소년들의 성윤리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의 청소년」, 1996, 20-25.
31. 최광수 : 여자 중학생 학부모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2. 최순희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3. 한유정 :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4. 홍강의 :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의 문제점, 「오늘의 청소년」, 1996, 12-19
35. Cecilia Dine Jacobs, Eve M. Wolf : School Sexuality Education and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1995, 65(3), pp91-94.
36. Debra W. Haffner : Sexual Health for America's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6, 66(4), pp151-153.
37. Douglas Kirby :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0, December
38. \_\_\_\_\_ : Sexuality Education: A More Realistic View of its Effec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85, 55(10)
39. Guy S. Parcel, Dave Luttmann : Evaluation in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April
40. Guy S. Parcel, Dave Luttmann, Michael P.



- Meyers :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9, June
1. Hershel D. Thornburg : Adolescent Sources of Information on Sex,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April
  2. Lorna Brown : Sex Education in the Eighties, Plenum Press, 1981
  43. M. Maxine Hammonds, Jerelyn B. Schultz : Sexuality Education Instructional Techniques: Teacher Usage and Student Preferenc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4, 54(7)
  44. Sheila Gumerman, Michele Jacknik, Ron Sipko : Sex Education in a Rural High School, Journal of School Health, 1980, October

〈Abstract〉

## The Study on Change in Sex-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through Sex Education

: focusing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girls' junior high schools

Kye Su-Yeon\* · Moon In-Ok\*\*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sex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sex. The subjects were taken from by 199 students in 3 classes from 1st grade in H girl's junior high school as the study group, and 2 classes from 1st grade in S girl's junior high school as control group. During the survey period(September 21, 1998 to September 30, 1998), 6 times in terms of one-hour class for sex education were taught to the study group. A pre-test was executed on September 19, 1998 and the post-test on September 3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research, 20.1%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sex education from parents and 89.9% from teacher. They have mostly obtained the sex-related information from teachers(59.8%), following movie, radio, TV, or video tape(40.7%), friends(35.2%), reading materials such as books, cartoons, news papers and magazines(31.7%), parents(15.6%), siblings(7.0%), PC(1.5%) and telephone service(1.5%).

2. 27.1% of the subjects reported that they had sex-related worry concerning from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following physiological phenomenon(31.5%), sex violence(11.1%), physical characteristics(7.4%), VD and contraception(5.6%), sexual impulse(5.6%), pregnancy and delivery(5.5%), and sexual behaviour(3.7%).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dolescents usually solved their problems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their friends(44.4%). However, 16.7% of the

subjects were turned out not to request any solution. The other minor routes to settle their problems were written materials such as books, magazines(13.0%), parents(13.0%), movie, radio, TV, or video tape(5.5%), acquainted female elders(3.7%) and teachers(3.7%).

3. The most interesting part regarding sex was the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61.8%), following adolescent's emotion(55.8%),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enders(52.8%), AIDS(48.7%), VD(46.7%), pregnancy(45.2%), contraception(45.2%), abortion(41.7%), intercourse(41.7%), masturbation(41.2%), sex violence(41.2%) and genital structure and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28.6%).

4. In regard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fluencing sex-related knowledge, the higher educational career of mother, living with at least either parent and the experience of sex education by teach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p < 0.05$ ).

5. In regard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sex, the experience of sex education by parents or teachers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p < 0.05$ ).

6. The analysis of knowledge score comparing results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showed that control group's score decreased from 12.5 to 12.44 while the study group's score increased from 12.33 to 21.31,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1$ ).

7. The analysis of the attitude scores before and after sex education showed that the control group's score slightly increased from 55.57 to 56.36, while the study group's score increased from 54.79 to 61.95,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01$ ).

8. The level of sex-related concerns of the study group after sex education marked both the increase in some items and the decrease in others.

9. Most instructive session among the sex education was the third "to be a good friend to the opposite sex"(27.0%).